

階保險을 겨냥한 開業醫 育成策

—齒科領域의 制度面에서—

齒協副會長 李 在 賢

지난 6月 30日로서 醫療保險實施後 꼭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醫療界가 醫療保險實施後 여러가지 變革을 가져온 것이 事實이다.

첫째는 醫療保險實施後 保險患者들의 綜合病院의 選好性으로 因하여 患者가 綜合病院으로 集中하는 現像이다. 韓國 生産性本部가 調査한 綜合病院의 患者增加率를 보면 外科가 77年 上半期에 7.6% 증가한 것이 下半期에는 3배에 가까운 21.6%로 急增하였는데 이는 下半期부터 醫療保險이 實施된 가담이고 入院의 境遇는 上半期에 9.0% 증가한 것이 下半期에는 21% 증가하였으며 全體患者中 約 12%가 保險患者로서 保險患者가 28%에 達할 때까지는 綜合病院의 利潤이 保障되나 28%가 넘어스게 되면 利潤의 잠식을 當하기 始作한다는 것이다.

患者가 綜合病院으로 集中하는 代身 個人醫院은 漸次 한산해져서 個人醫院의 12%가 全然 醫保患者를 取扱하지 않았다는 事實만 보드레도 醫療保險實施가 綜合病院에는 甚대한 影響을 가져왔지만 個人醫院에는 零細化하는데 부채질하는 結果가 되었다고 할수 있다.

셋째로 某工團病院이 工團과 그地域住民을 對象으로 開院하였으나 赤字運營으로 1年만에 門을 닫게 되었다는 事實이다. 그런데 明年부터는 公務員 및 私立學校敎員과 또 300名 이상의 職場에 까지 擴大實施하게 되어 約 8百萬名이 增加하게 되어 總保險人口은 1千萬名이 넘게 되어 全體國民人口의 1/3에 가까운 數字가 保險惠澤을 받게 된 것이다. 여기서 施療人口의 增加에 對備한 醫療界의 對備策으로선 먼저 現在 醫療保險組合과 療養取扱機關과의 契約制를 廢止하고 希望하는 保險醫療機關을 登錄시켜 一般患者와 같이 登錄醫師이면 어느 組合에 屬하건 患者가 希望하는 醫療機關을 選하도록 하여야겠다. 只今 綜合病院으로 集中하는 理由의 하나는 契約된 個人醫院의 所在은 잘 모르고 또는 指定이 되어 있다 하드레도 遠거리가 되어서 가기가 不便하고 또 하나는 位置가 잘 파악이 안되어 있지만 綜合病院은 쉽게 갈수있는게 理由의 하나이다. 그러나 明年부터는 現在의 推定으로 하드레도 24% 이상이 保險患者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綜合病院의 經營도 壓迫을 받게 될 것으로 第一急先務는 契約制를 廢止하고 登錄制에 依하여 患者가 便利하게 醫療機關을 利用토록 하여야겠다. 또한 感氣나 簡單한 處置를 爲해서 綜合病院을 利用한다는 것은 綜合病院의 優秀한 施設과 Step에 無用化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簡單한 處置나 또 齒科臨床에서 흔히 있는 Amalgam 充填이나 根管充填 또는 拔牙같은 것은 個人醫院에서 하도록 制度的으로 마련하여야 醫療機關의 均衡있는 發展은 勿論 醫療保險의 土着地에도 寄與할 것이다. 따라서 現在 醫療保護制度에서 實施하고 있는 것과 같이 一次療養取扱機關은 個人醫院으로 하고 一次的으로 個人醫院에서 患者를 治療하고 入院이나 또는 大手術을 할 境遇에만 2次療養取扱權關인 綜合病院에서 取扱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